

# 교정상담에 있어서의 기독교상담적 실천방안

류혜옥(고신대학교)

## 요약

기존의 교정현장은 범죄인에 대해 억제와 통제 중심의 형벌위주의 교정 교화를 중심으로 주로 사회와의 격리와 교정교육에 중점을 둔 응보적 정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정 시설에 대한 처우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계도 강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이후 교정 분야에서도 회복적 사범이 대두되며 형벌 중심의 사범에서 그 개념이 확장 되고 있다. 사후약방문인 교정프로그램이나 훈련에 집중하기보다 회복적 정의와 실천 방안들로 제시 되고 있는 교정상담영역에서 기독교상담의 특징에 부합한 사례와 실천을 소개하고자 한다.

## I. 들어가며

오늘날 청소년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은 진화하여 범죄가 되었다. 친구의 잔인한 폭력에 견디지 못한 아이는 자살하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무관심했던 부모를 비난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정상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류혜옥, 2012).

교정상담은 교정이라는 장면에서의 인간 행동을 다루면서 범죄자나 비행소년 등 반사회적 행동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 심리학적 입장에서 적용시켜, 또는 범죄성, 비행성을 제거 내지 억제시켜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학의 새로운 영역이다(김용준, 1996; 이수연, 2010; 정갑석, 1987). 즉 교정에 있어서 심리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재소자나 소년원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영역이다.

이러한 교정상담은 교정현장에서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을 위한 개인·집단상담, 심리치료, 보호자 상담, 심리검사, 분류심사업무 등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도 심리학적 지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1. 교정상담

교정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정시설 등에 대한 일반사회의 편견적 시각은 교정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이에 대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용준, 1996).

첫째, 수용된 재소자들을 흉악하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소자들에 대하여 일반사회인들이 갖기 쉬운 심리적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일반인들은 자신이 직접 범죄의 피해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재소자들은 흉악하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이 지배적이고 그들을 수용

하는 교정시설이 생활주거지에 신축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피해, 자녀교육의 악영향,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 등을 염려하여 반대하려든다. 이는 출소자들을 자신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로 인식하고,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존심에 손상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정시설이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자신의 지역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범죄자들은 범죄행위 또는 사회규범의 일탈이라는 특출성으로 인해 일반인들로부터 분리되어 생각된다. 특히,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특이하고 클수록 우리의 관심도 커진다.

셋째, 범죄자의 외모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특정한 편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자는 눈이 매섭고 키가 클 것 이라고 보며 이는 흉악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 전과자임을 알기 전에는 편하게 대했던 사람이 나중에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공포와 회피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도 일반인들의 인지구조 안에 범주화되어 있는 범죄자의 외모 등과 같은 편견 심리의 영향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자들이 흉악하게 생긴 것은 아니며 오히려 준수한 외모를 가진 범죄자들도 많다.

넷째, 교정시설과 범죄자들에 대한 편견 심리의 원인에 있어서 특별히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① 교정시설의 특수성이다. 보안 위주의 교정정책 상, 교정시설은 일반인들이 들여다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견 심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② 교정직원들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이다. 즉, 철저한 구금확보 없이 재소자의 교정교화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③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들이 모두 교정교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이다. 이는 범죄자를 정신병자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사실 어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감정만 허락된다면 교정시설보다는 사회시설에 봉사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대체케 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정교화 하고자 수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국가 경제적 손실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범죄자들 중에는 위험한 사람들도 있다. 인성 상 문제가 많고 흉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사회 방위적 차원에서 교정시설에서 교정교화 함이 적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소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일정기간을 복역하고 출소하게 되면, 대체로 출소 초기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사회에서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사회복귀를 저해하기도 한다.

다섯째, 출소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들이 재사회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범죄자들이 다시 재범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느 출소자가 직장을 얻어 근무하다가 동료들이 후에 그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를 피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냉담한 행동 등을 보인다. 그러면 당사자인 전과자는 직장동료들의 냉담한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범죄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범죄적 생활방식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직장 동료들은 출소자의 재범행동을 보고 전과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출소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재소자들은 사회적 여건이 열악하고 유리한 사회 이익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지도층을 비난하고 가진 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부(富)를 축적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사회규범 내지 법률 등은 출소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역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 과도한 책임을 주면 그 당사자는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가 없는 것이

다. 과거의 교정정책이 응보 주의적 이념에 기초했을 때는 재소자의 통제와 질서유지가 가장 중요한 형(行刑)의 집행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교정제도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교육형 교정정책의 영향으로 교정의 사회화라는 가치를 들게 됨에 따라 행정집행의 완화와 재소자의 인권이 크게 신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이현림, 2009).

## 2. 교정상담의 독특성

교정업무의 목적은 수용자를 교정, 교화시켜 건전한 국민으로 사회복귀시켜 사회에 정착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들에게 심성순화와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강력범죄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그 범죄의 상당수가 전과자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재범률도 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임봉기, 2009).

이러한 현상은 당면한 교정업무의 어려움 즉 과밀한 수용으로 인한 범죄 악성 차단 및 개별처우의 어려움, 수용자 교정 교화 프로그램의 부족 및 운영자의 비전문성, 교정공무원의 교화의지 부족, 개선이 어려운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자 교화 개선의 시작은 수용자와 교정직원간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상담이다. 수용자가 교정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처우문제나 심적 불안 등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상황을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상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용자의 요구에 의하든 수용관리나 처우를 위한 직원의 필요에 의하든 교정시설에서 행하는 모든 상담을 교정상담이라 할 수 있으며 교정상담은 수용자 교화 개선의 한 과정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점은 일반상담이나 심리치료와 다른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3. 교정교육의 원리

교정교육의 원리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존중의 원리이다. 범죄자를 지도함에 있어서 자아 기본적인 이념은 인간존중이며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그가 갱생(更生)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갱생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나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신뢰감, 이것이 교정교육에 있어서의 인간존중이다.

둘째, 자기인식의 원리이다. 자기인식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이므로 교정교육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교정교육은 지도자와 범죄자와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만큼 자기인식이 없이 교정교육은 어렵다.

자기를 알지 못하고서는 타인을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타인의 문제해결을 조력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도자의 자기인식은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또한 냉정한 자기인식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자조의 원리이다. 범죄자에 대한 지도는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조력하

는 것이며, 그들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말(馬)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 있으나 물(水)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과 같이 지도자는 범죄자의 자조능력을 조장해 나가는 활동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은 어디까지나 범죄자의 자기결정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등 문제해결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범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범죄자 자신의 의사로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결정만이 진정한 갱생의 제1보인 것이다.

넷째, 신뢰의 원리이다. 교정교육의 본질은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공동작업에 그들을 참가시킴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범죄자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믿고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만이 교정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신뢰관계의 수립은 인간성의 존중과 그들의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이순길·김용준, 1999).

#### 4. 교정상담에 있어서의 문제들

수감자들의 범죄행동과 범죄적 사고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하여서는 일단 행형의 개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은 무력화와 처벌을 우선적으로 하여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무력화 한다(조준현·김성언, 1997).

교정 상담에서 구체적인 목표는 수용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그들이 행한 범죄에 응당한 처벌을 부과하는 작업도 해야 하지만, 미래에 범할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고 순화하여 사회적인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규범학적 차원에서 행형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구체적인 범죄행동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도 다각적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규범학에서는 형벌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한 형벌제도가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수용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 별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Lewis, 1983; Heeren & Shichor, 1984).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서구에서는 최근 범죄의 예방과 교정에 대한 새로운 발상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치료공동체(The Therapeutic Community: TC), 인지행동 치료,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정(correction)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즉 처벌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치료 및 재활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결국 범죄발생의 원인에 관한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후반 이전까지는 고전주의 범죄학(classical criminology)의 영향을 받은 탓에 교정의 주목적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단지 수용자들을 구금하고, 노동을 시키는 정도가 교정활동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이후 실증주의 범죄학(positivist criminology)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구금과 노동에 의한 처벌 자체보다는 범죄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사업가, 교정시설 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 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적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치료(treatment) 및 재활(rehabilitation)은 모든 교정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Hass & Alpert, 1995).

교정정책의 주요 목표가 치료 및 재활에 맞추어져 많은 프로그램들이 적용되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관련 전문가인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사업가 등의 역할이 확대 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교정 시설 내에서의 심리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는데, 이는 심리학자들의 주요 영역이 수용자들에 대한 심리학적 측정 및 평가에서부터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문제행동 치료, 재활 프로그램의 시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Milan & Long, 1980).

## II. 기독교상담의 핵심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관계들에 관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효율적 실천적 사역이 기독교상담이며 교회의 사역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다. 기독교상담은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목록(고전 12:8-10) 중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치유), 예언(덕을 세움, 권면, 위로), 영들 분별과 연관되는 교회의 사역이며, 또한 12장 28 절의 목록과 관련해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침, 돕는 것, 다스림 등과 깊이 관련된다(강용원, 2015).

기독교상담에 관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인용하여 개념을 찾아내는 일은 기독교상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상담의 내용과 독특성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화된 사랑의 속성에는 성령의 열매로 온유 절제 충성(갈 5:22)외에 섬김 나눔 돌봄 긍휼 위로 격려 지지 세워주기 소망 등을 말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나눔을 통한 섬김과 돌봄, 소망을 통한 위로 격려 지지의 세워주기, 감사를 통한 하나님에게로의 회복과 책임과 의무의 개념을 통해 교정상담에서 기독교상담의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강조 하고자 한다.

### 1. 섬김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갈 5:13-14). 성경은 '서로'라는 구절을 대략 160번 사용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독교인은 코이노니아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지하며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Jones, 2006).

기독교상담은 믿음과 지식의 사역이며,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섬김의 행위이다(강용원, 2015). 섬김(마 20:26-28; 벰전 4:10)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갈 5:13-14)이다.

### 2. 돌봄

돌봄(눅 10:34-35; 딤후전 3:5)은 섬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낯선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그들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고 돌보는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21:25)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응답이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 고통에 대해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고전 12:25-26).

돌봄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흐름이 될 것이다.

### 3. 소망

상담은 예방과 발달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담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그 희망으로 현재를 극복하며 나아가도록 돕는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상담은 소망의 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언약백성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게 됨을 경험한다(롬 8:28). 상담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희망을 강조(yalom,1985)하였다.

일반 상담과 가장 차별화 될 수 있는 기독교상담의 특성중 하나인 부활신앙은 소망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벧전 1:3)는 것이다. 소망의 믿음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 하게 된다.

가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도 잘 나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며 지금 노력해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품지 못하면 좌절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약속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기독교상담이 복음 사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Nodding(2002)은 교육의 목적은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에 획득할 자신의 모습이 훨씬 사랑스럽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데 있다고 하였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상담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Beck( 1985 )은 우울증을 비롯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며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며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는 삶 소망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소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 4. 세워주기

기독교상담이 개인을 세워주며, 먼저 된 자들이 끊임없이 돌보는 일은 필수적이다.

서로를 격려하고(고전 1:3-7; 시 10:17)서로를 지지하고 세울 수 있음은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살전 5:11; 행 9:31). 성령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친히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도우신다(고후 1:3-7).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방법들을 모색(히 10:24-35)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지지자 위로자의 역할이기도 하며 근본적으로 조력자로서의 태도가 유지 되어야 한다.

### 5. 감사

돌봄과 세움을 받은 사람은 (골 3:12-17)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 하게 된다.

기독교인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를 전하는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행해진다. 그들은 모든 일과 행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상담자들은 자신의 이전 삶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의 삶에서 위대한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상담 장면에서 기억하고 감사한다.(I Jones, 2010).

## 6. 책임과 의무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로의 회복이다. 이를 위하여 섬김과 돌봄으로 세움 받은 사람은 감사를 통해 재정비 하며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행한 일에 책임을 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책임과 의무(야 5; 히브리서 10, 13)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세를 나타낸다.

### III. 교정 분야에서의 기독교상담 실천 사례 : 청소년회복센터(청소년 사범형 그룹홈)

최근 교정상담도 회복적 사범 모델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다. 회복적 사범 철학이 널리 퍼지면서 회복적 접근방식에 대한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피해자-가해자 조정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회복위원회(Community Reparative Board)는 피해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인데,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셋째, 가족 간 회의 또는 가족 간 대화모임(Family Group Conferencing), 뉴질랜드에서 1989년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 가족 간 대화모임(Family Group Conference)이 고안되면서 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 되었다. 가족 간 대화모임은 마오리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19세 이하 소년범들이 경찰이나 법원, 심지어 교정시설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모임을 신청할 수 있고 가족 간 대화모임의 진행은 전문 진행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가 진행을 하며 경찰서의 소년담당 경찰관이 참석한다. 또한 지역의 지도자나 성인이 함께 참석하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해결해 나간다. 가족 간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양측의 합의는 법원에 의해 최종 추인을 받게 되고 그 실행여부가 의뢰기관 등에 의해 모니터링 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Bazemore,&Umbreit, 2001).

뉴질랜드의 가족 간 대화모임은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회복적 정의의 정신이 구현된 최초의 시도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행자들이나 비행청소년들은 사회 환경적으로 유해한 환경과 마스크, 가정의 부재로 인한 돌봄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공허감과 외로움이 원인인 경우를 몰 수 있다. 소년 범죄자가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성인이 되었을 때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은 보살핌과 애정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부정이 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동하여 공격성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로서 기존의 처벌중심 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경험 연구결과들이 제시 되고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북아메리카, 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 등에서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소년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국마다 회복적 사법의 입법적 지위, 제도적 실천 방향 및 내용 등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한영선, 201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범죄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융통성 있는 반응이다.
- 2) 개개인의 존엄성과 형평성을 존중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피해자, 가해자, 지역 사회의 치유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한다.
- 3)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안이 된다.
- 4) 전통적인 형사사법 과정 및 제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 5) 문제해결과 분쟁의 근본 원인을 통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 6) 피해자의 피해와 요구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법이다.
- 7)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통찰하게 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자발적 책임을 지게 하는 접근 방법이다.
- 8) 기존에 확립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여건, 법적 전통, 원칙 및 근본 철학에 적용될 수 있는 융통성 있고 가변적인 접근 방법이다.
- 9) 중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죄 및 범죄자를 다루는 데 적합한 접근 방법이다.
- 10) 중요 목표가 가해자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기술을 교육시키는 데 있다. 특히 소년범이 관련 된 상황에 적합한 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이며,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에 적합하다.
- 11)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다.(류혜옥외,2014).

형사정책연구원은 회복적 사법의 실천과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한국의 사법 속에 회복적 사법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사건에 회복적 사법 실천모형을 적용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기 회복적 사법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뉴질랜드에서 실천된 가족회합이 적절한 방식으로 고려되었으며, 이후 논의 및 개발 과정에서 조정모형과 회합모형이 적절하게 적용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이 개발되어 실험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 민간 영역이나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도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실천모형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영선(2013)은 사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Bazemore&Umbriet(2001) 은 지역사회 안전성에

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청소년 사범형 그룹홈)는 대리부모와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수용되었거나 보호관찰중인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와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과의 진정한 소통과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청소년회복센터를 제안하고 있다(천중호,2013).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건전한 보호 육성이므로 가족관계의 회복이나 또래 아이들과의 소통을 진행 하는 것은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가정의 따뜻함과 배려를 박탈당한 환경에서 자란 비행청소년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심하며 열등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누군가를 만나면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하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원은 외국과는 달리 소년들에게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게다가 소년원에서는 야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들끼리만 생활하게 하는데, 이는 소년의 교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소년원 출신자들의 성인범 전이 비율이 67%나 된다는 것과 2011년도에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76%가 재비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소년원에 무턱대고 송치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다(홍종관, 2009).

가정이 없거나, 가정이 있더라도 그 보호력이 미약하여 재비행이 강하게 예측되는 소년들 중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만 해 준다면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 소년들이 꽤 있다. 그러한 보호조치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년에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거나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재비행의 예방에 있어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소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인데, 소년의 상처 치유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폐쇄적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부모와 가족을 대신하여 소년들을 보호해줄 장치'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청소년회복센터가 지향하는 모습이다.

수감되는 공동생활 속에서 비행문화를 겪으면 더욱 확산 될 것이므로 이들에게 가정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일이야말로 말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하여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청소년회복센터라는 명칭은 가정위탁을 통해 비행소년의 정신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명명한 것이다.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의제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생활가정'이며 '대안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의제된 공동생활가정이 형성되므로 '사범형 그룹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회복센터가 주는 의미는 가정을 제공해주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상담의 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나가며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었던 교정상담이 처우이론의 근본적인 한계를 나타냈다. 이는 사람은 자유와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환경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와 책임

성과 도덕성이 배제된 채 처우 형벌에만 급급한 처우는 진정한 회복이나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본고는 재범방지뿐 아니라 교정상담 대상자들의 인간적이고도 자유를 책임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독교상담적 실천인 청소년회복센터의 사범형그룹홈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활동들은 더욱 광범위하게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발전 할 수 있고 가정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지며 문제를 피하기보다 직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가르침과 배움의 방식이 개혁과 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게 해주었다.

청소년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 중에는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소년들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이들의 재비행률도 매우 높다. 이들은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그리고 학대로 인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다보니 타인과 좋은 관계 맺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반항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나 교사 그리고 경찰, 검찰, 교정관계자들로부터 멸시와 무관심 그리고 방임 등과 같은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가 이들로 하여금 더욱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을 갖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 이로 인해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소년들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가 꺼려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들을 소년원에 송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소년원과 같이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시설은 사춘기에 있는 소년들의 마음의 상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기를 기회도 잃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정신심리 및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영화 파바로티는 성악에 재능이 있는 한 소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이혼 하였고 외동으로 그 누구하나 돌봐줄 사람 없는 상태에서 돌봄을 경험하지 못한 이 소년은 그 누구의 간섭도 없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밖으로 돌아다니다 조폭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폭력을 일삼게 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지만 돌봄과 헌신으로 소년의 재능을 일깨워주고 미래의 성악가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한 선생님을 통하여 범죄자가 될 뻔했던 한 사람을 세워준 감동적인 내용이다. 그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선생님은 그 소년에게 가정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이 주는 돌봄 사랑 나눔 등을 통해 궁극적 소망을 갖게 됨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됨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교회가 엘리트 양성도 중요한 사역이겠지만 교정 분야 에도 눈을 돌려 교회와 연계하여 사역이 확장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강용원(2015). “목회상담과 사랑.” 『성경과 신학』 73호. 171-180.
- 권기원(2011). “교정 심리학의 이해와 적용.” 『한국교정상담학회 춘계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정상담학회.
- 권오걸(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한국상담학회 교정 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 공정식, 이수정(2007). 『교정심리학』. 서울: 시티뱅크 디자인.
- 곽형식(1999). “비행청소년의 교정상담.” 『한국교정상담학회 창립총회 학술대회』 한국 교정상담학회. p18.
- 김성곤(2011). “교정심리학의 이해.” 『한국교정상담학회 동계워크숍 자료집』. 한국 교정 상담학회. p17.
- 김용준(1996). “교정상담의 발전방향.” 『한국교정상담학회 창립총회 학술대회』. 한국 교정 상담학회. p1-2.
- 김용준(1996); 이수연(2010); 정갑석(1987). “교정심리학의 이해.” 『한국교정상담학회 동계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정상담학회. p18.
- 류혜옥(2012). “교정심리학의 이해와 적용.” 『한국교정상담학회 춘계워크숍 자료집』. 한국 교정 상담 학회. p33.
- 류혜옥 외 공저(20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지사.
- 법무부(2002). “교정현장상담.”
- 이동자(1993). “비행청소년을 위한 상담정책 연구.” 『한국교정상담학회 창립총회 학술대회』. 한국 교정상담학회. p46.
- 이상현(2002).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수연(2010). “교정심리학의 이해.” 『한국교정상담학회 동계워크숍 자료집』. 한국 교정 상담학회. p17.
- 이수정(2006). 『범죄 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북카페.
- 이순길, 김용준(1997) 『교정학』. 서울 : 고시원.
- 이현립(2009). “교정상담의 발전방향.” 『한국교정상담학회 창립총회 학술대회』. 한국 교정 상담학회. p1-2.
- 임봉기(2009). “교정상담의 실제.” 『한국교정상담학회 창립총회 학술대회』. 한국 교정 상담학회. p31.
- 정갑석(1996). 『교정심리학』. 서울: 경기도서.
- 한영선(2013). “형벌이론과 회복적 사범.”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 상담 학회. p40.
- 홍종관(2009). “비행청소년의 교정상담.” 『한국교정상담학회 창립총회 학술대회』. p14-15
- 문희영 외(1996); 원명희(2002).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개선 방안.” 『경산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 2권 1호.

- Bazemore, G. (1998). "Restorative Justice and Earned Redemption": Communities, Victims, and Offender Reintegr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1(6), 768-813.
- Bazemore, G. & Umbreit, M. S. (2001). "A comparison of four restorative conferencing models." Washington, DC: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ianchi, Herman. (1994). *Justice as Sanctuary; Toward a New System of Crime Control*. Oregon: WIPF & STOCK.
- Hass & Alpert (1995). *The dilemmas of corrections (3rd ed.)*. IL: Waveland Press
- Hudson, J. Morris, A. Maxwell, G. & Galaway, B. (1996). *Family Group Conferences: Perspectives on Policy and Practice*. Annandale, VA: Federation Press.
- Jones, Ian. F. (2006). *The Counseling of Heaven on Earth*. 임윤희 역(2010). 성경적 기독교상담.
- Rosers, C. R. (1977). *Carl Rogers on personal power*. New York: Delacorte Press.
- Morrison, B. (2005). Restorative Justice in Schools. In Elliott, E. & Gordon, R. M. (Eds.), *New Directions in Restorative Justice: Issues, Practice, Evaluation*
-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3rd ed.). New York: Basic Books.



# 교정상담에 있어서의 기독교상담적 실천방안

논평: 김세광(고신대학교)

본 연구는 현재의 사법적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무엇보다 인간행동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상담의 개념에서부터 원리와 독특성을 정리해 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 인식 수준에서 생소감이 있는 '교정상담'에 대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준다.

본 연구의 의미는 교정상담이라는 사법적, 응보적 패러다임의 한 영역을 기독교 상담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기독교 상담의 실천 사례로서 다양한 해외의 사례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의 형태인 청소년회복센터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인지적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수준을 실천적 수준까지 확장시켜 주고 있기에 보다 가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워드제어(1990/2011:207)는 회복적 정의란 “범죄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이다. 범죄는 잘못을 바로잡을 의무를 창출한다. 사법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잘못을 시정하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처벌적·응보적 형사사법체계가 지닌 비효율성과 적대성 및 피해자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배려부족 등에 반론을 제기하며, 대립적 소송과정을 통한 강제적 해결책의 '부과(imposing)'보다는 당사자들 상호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solving)'과 '치유(healing)'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Zeher, 1990/2011: 김은경, 2007: 1170). 이 같은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적 양식은 해외의 사례와 청소년회복센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본 연구가 지닌 회복적 가치가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상담의 기독교상담적 접근을 위해 회복적정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회복적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이전에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개념과 기독교적 가치에 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정상담에 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일상적이지 않은 영역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었던 것처럼 '회복적 정의'의 의미와 기독교상담적인 가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회복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이고 기독교적인 돌봄의 사례인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와 가치적인 요인이 기독교적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독교의 사회참여는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한 일이다. 최근 다문화, 위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지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교정상담'의 영역처럼 낮은 영역에 기독교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핵심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이는 회복적 정의의 최대 관심이 '관계성'에 있는 것과 연결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정의의 회복적 실천은 단순한 관계의 구조가 아닌 '공동체적 관계 구조'라

고 볼 수 있다(서정기, 2011: 24). 본 연구를 통해 교정상담의 기독교적 실천 방식이 ‘관계의 구조’ 속에서 구현되길 바란다. 또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기독교적 상담의 원리에 기초한 교정상담으로 성취되길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김은경(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18(3). 1159-1188.
- 서정기 (2011).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Howard Zehr(2005). *Change the lenses*. 손진 역(2011).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